



## I. 서론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는 초기대응 실패와 국가방제능력의 미비, 장비와 인력의 부족,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 지휘체계의 분산, 구난 및 방제기술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대규모 해양오염에 대비한 국가 방제능력 재고와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겼다. 이에 정부는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위기관리 패러다임 자체를 대응·복구의 단순한 재난관리로부터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전환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이처럼 국가재난 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이 재난의 대응·복구 관리에서 재난의 예방·대비 관리로 전환된 상태에서 일어난 대형 해양재난으로서 전형적인 인적재난이다. 비록 짧은 기간에 12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회수 및 제거작업에 참여한 덕분에 해안에 부착된 기름은 상당히 제거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태안연안의 생태계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괴되었다[1]. 사상 최악의 충남 태안 앞바다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의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2].

이렇게 장기간의 복구과정이 필요한 피해 지역이 피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난 이후의 관리 및 대책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생태계 파괴 및 태안반도를 기반으로 살아온 사람들과 그 공동체의 삶의 파괴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다학제적(multi-interdisciplinary) 접근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적 삶을 복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의 재난지역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관점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현장연구 및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1.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DRC)의 의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DRC: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개념은 D. Geis에 의해 도입되어, CUSEC(Central United States Earthquake Consortium),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CBDM: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와 유사한 접근이다[3]. 이는 사회화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QoL)을 유지케 하는 방재측면의 장기적, 전략적 방재전략으로 이해되며,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전에 재난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DRC)는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 가능한 지역사회를 설계, 건설, 관리하기 위해 우리의 지식을 학제적으로 활용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모델, 과정, 지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말하는 동시에,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원 가능한 원칙과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성을 극소화하는 수단을 의미하기도 한다[4].

### 2. 선행연구 검토

지속가능개발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하여 종합적 차원에서 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계획으로서 재난에 강한 마을공동체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다[3]. CUSEC[5]는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DRC)의 목적이 지역사회 각 부분의 재난취약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계획과정을 협력협정(Partnership Agreement), 계획착수(Start-up), 계획실행(Operation), 그리고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4단계로 제시하고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DRC)가 지역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FEMA[6] 역시 해당 지역사회가 재난에 강한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전 사회 구성그룹의 장기적인 노

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FEMA는 고용자 및 피고용자 그룹, 지역사회조직, 서비스업종그룹 및 지방정부의 협동적 참여(Cooperative Participation)와 책임(Commitment)이 우선되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i) 파트너쉽 만들기, ii) 위험과 취약성 확인, iii) 위험경감-실행의 우선순위 정하기, 그리고 iv) 성공을 위한 (주체간) 의사소통을 구체화한 10단계의 계획 틀을 제시한 바 있다.

Geis[7]는 재난에 강한 공동체의 계획과 추진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가치임을 설명하면서, i) 종합적 관점의 유지, ii) 지역사회 위험분석, iii) 계획과 지방의 의사결정과정의 통합, iv) 재난자원네트워크의 창조와 활용, 그리고 v) 공공인식의 증진이라는 5단계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DRC) 계획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Geis[4]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DRC)의 주요 원칙들로 1) 지속가능개발 개념과 통합, 2) 지속가능 지역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 3) 총체적·통합적 계획, 4) 도시·건축계획 시 방재개념도입, 5) 방재관리기능 강화, 6) 지역맥락의 반영 및 상향식 접근, 7) 민-관의 참여 역량 강화, 8) 지방정부 역할 강조, 9) 인권으로서의 방재 중요성 강조, 그리고 10) 부차적 편익의 고려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원칙 6부터 8은 추진방식 내지는 추진전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 3.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2007년 12월 7일 태안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재난취약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 형성 측면의 문제점 분석과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eis[4]가 제시한 지역맥락의 반영 및 상향식 접근, 민-관 참여 역량 강화,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추진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략,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

탕으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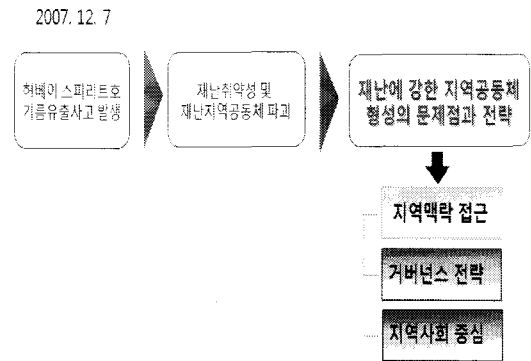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분석틀

## III.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지역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문제점

### 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개요

2007년 12월 7일 07시 06분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소속의 예인선 삼성 T-5호(292톤)로 예인 중이던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1호(11,828톤)가 강풍에 로프가 절단되면서 대산항 입항을 위해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의 허베이 스피리트(Herbei Spirit, 146,848톤급)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유조선의 원유탱크에 3개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재 중이던 원유 263,00 kl 가운데 12,547 kl가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 서산 가로림만에서 태안 안면읍 내파수도에 이르는 연안 해안선 167km가 기름으로 오염되었으며, 연안조류에 의해 전남 지역까지 타르볼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월 현재 충남지역 어장 473개소(5,159 ha), 해수욕장 15개소, 양식어장 368개소(8,571 ha) 등이 직접적인 오염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8].

### 2. 사고지역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측면의 문제점

## 2.1 지역맥락 접근의 문제점

지역맥락의 재난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정치, 문화적 이해와 반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 학문 성격을 띠는 지역연구가 필요하며, 풍부한 자료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연구의 두 가지 핵심적 개념은 지역(region)과 문화(culture)이고 특히 문화는 지역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된다[9]. 한편 지역연구는 종합연구(comprehensive),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그리고 비교연구(comparative)의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10].

태안지역에 관한 연구로는 1992년 한국전력의 안면도 핵폐기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조사로 지질 및 해수, 기후 및 기상 등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 그리고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11]에서 실시한 농업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농업 생산물 조사 등이 있다.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태안지역을 조사·연구한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12].

그렇다면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재난지역의 재난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지역맥락에 바탕을 둔 재난관리가 이루어 졌는가?

첫째, 사고 지역인 태안지역은 지형·지질적 특성과 생태학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즉, 지형적으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자갈, 갯 및 모래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조간대 지역이어서 기존의 기름유출사고와 다른 오염물질의 거동특성과 이에 따른 중장기적 잔류특성이 예상되었고, 또한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하며 다양한 희귀 생물종과 해안사구가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생태경관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지질적 특성과 생태경관적 특성을 반영한 기름제거 작업등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었는데, 이평주[13]의 연구 등에 의하면, 이러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행정 편의적 방재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태안군은 고령사회(aged society)이다. 즉, 우리나라의 농촌형 지역이 대부분 그렇듯이 태안지역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17.9%에 달한다[12]. 이처럼 고령화 지역인 만큼 방재작업 시 많은 고령인들이 방재작업에 동원 될 수 있음을 예측한 방

재작업관리 전략이 필요하였지만 그러하지 못하였다. 즉, 많은 노인들이 방재작업에 동원된 만큼 방재작업시의 건강관리 및 재난심리 전략이 요구되었지만 이런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셋째, 태안지역의 읍면단위 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태안읍의 경우 약 2.3%, 안면읍의 경우 약 23%, 고남면의 경우 약 62%, 남면 약 29.1%, 근흥면 약 42.2%, 소원면 약 53.9%, 원북면 약 20.7%, 그리고 이원면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서 약 85.9%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에 따라 어업종사자의 비중에도 편차가 심하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이후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관행어업을 영위해 온 맨손어업 종사자들이다. 그런데도 맨손 어업의 숫자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들의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2007년 12월 7일 사건 이전까지 신고 된 맨손어업인은 총 8,204명이다. 반면 사고이후 피해추정의 과정에서 9,487명의 새로운 신고자가 증가했다[12]. 맨손어업인의 수는 피해보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 및 대응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생계비 지급 및 피해보상과정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갈등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했지만, 박태순[14]의 연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갈등이 초래되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 태안지역 주민들에 대한 면담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름유출로 인한 사고 지역의 재난관리 전략은 지역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고 가미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이전에 이미 충분히 지역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재난대응 및 복구 이전에 재난 대비/예방 과정에서 이러한 제반 요소들이 면밀하게 검토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 2.2 거버넌스 전략의 문제점

최근 재난관리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는 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이다[15]. 거버넌스의 특징은 계층제적 통제에 의존하지 않

고 다양한 구성원이나 참여 조직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즉,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나, 어느 조직도 다른 조직의 공식적인 하부조직이 아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분의 조직들로 이루어지는 연결망을 통한 재난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재난복구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로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었고 그 결과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집합행동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단체와 같은 중간집단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16]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시민들의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정부나 시민단체의 주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15].

그러나 이 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시의 민간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이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작동된 것은 아니다. 즉, 정부, 시장, 민간의 상호협력과 협조를 그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 민간부분의 활발한 참여와는 달리 민간과 정부, 민간과 시장(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상호협력과 협조는 그리 활발하지도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도 않았다. 아직은 온전한 거버넌스가 작동된 재난관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 2.3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점

왜 지역중심의 재난관리가 필요한가? 이는 지역사회 주민이 재난의 잠재적 피해자이며, 동시에 재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일 먼저 대응을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주체가 지역사회주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지역주민이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17].

그러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이후 지역 중심의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지역주민들은 생계비 지급과 피해보상 등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었고, 지역사회 스스로 이번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역적 역량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였던 것은 아닌가? 등에 대해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얼마나 지역중심의 재난관리가 이루어 졌는지 등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차분하게 연구 분석하여 지역중심의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IV.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

위에서 살펴 본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전략인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역맥락 접근 전략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지역맥락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지역맥락에 기반한 재난관리 접근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첫째,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역사회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화와 더불어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의 구조와 동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관심이 지역내부에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화속에서 지방 중심의 자주적·자립적 발전을 모색하는데 있어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점점 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18].

그리고 이러한 지역맥락적 재난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째, 재난 이전에 지역에 대한 많은 연구

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즉, 지역연구 내지는 지역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지리적 특성, 생태환경적 특성 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공무원들의 책상에서 모든 지역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관행부터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 2. 거버넌스 접근 전략

우리사회에서 재난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민간부분의 활발한 참여 특히, 자원봉사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 내지 협조는 부족하다. 따라서 민간 부분의 활발한 참여를 넘어 민간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시장(기업), 기업과 민간 간의 긴밀한 연결내지는 연계망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명석 외[15]의 연구에 의하면,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가능성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계층제적 거버넌스의 관점에 국한하지 말고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고려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야 한다. 특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태안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자원봉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나 활동의 조정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정부의 조정이나 관리 없이도 자원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체계상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자원봉사지원반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 사고에서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아 향후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지원반의 기능을 재구성하여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네트워크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기반한 재난관리의 효율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3. 지역사회 중심 접근 전략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조직이나 관계형성에 있어서 상호 신뢰, 친화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 등이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되며, 이러한 것들은 세계은행[19]과 Mathbor[20]가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체내의 연대, 공동체들 간의 연결, 그리고 국제적 기구를 포함한 재정적 및 공공기관들과의 유대를 통한 연계차원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Mathbor는 세계은행의 빈곤퇴치와 공동체 역량형성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분류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그림 2]에서 처럼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3단계를 강조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그 유용성을 여러 사례를 가지고 입증하였다[20].

이 모델은 유대(bonds), 연결(bridges), 그리고 연계(links)를 강조하고 있는데, 2005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포스트-카트리나(post-Katrina) 상황에서 모델의 유용성이 입증된바 있다. 또한 이 3단계는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개발을 포함한다. Mathbor의 연구에 의하면, 해안 지역을 강타한 자연재난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상호작용 및 연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은 재난지역 공동체의 재난대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잘 훈련된 공동체가 재난의 영향에 더 잘 준비되고, 대응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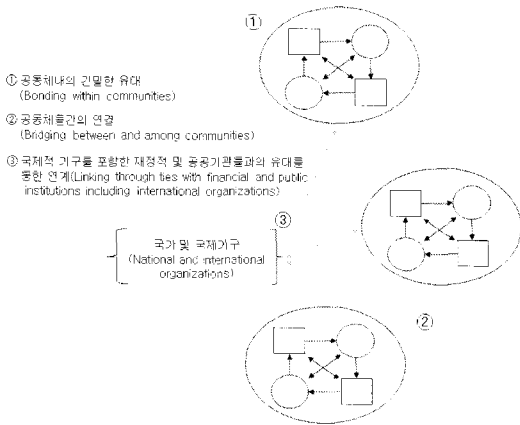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3단계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전략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지역공동체가 파괴된 재난지역의 재난 이후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V. 결론

최근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보면, 기존의 대응중심의 논리에서 사전예방 및 대비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올바른 것으로 인식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재난 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및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난지역의 지역공동체 파괴와 재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 이후 재난지역을 어떻게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부족과 지역안전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에 기반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업-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 참고 문헌

- [1] 노진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의 한계”, 2008년도 한국환경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31, 2008.
- [2] <http://www.chosun.com>
- [3] 권태호, 양기근, 오금호, 이은애, “지속가능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자율방재조직의 활동프로그램과 활용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 12권, 제1호, pp.107-130, 2008.
- [4] D. E. Geis, “By Design: The Disaster Resistant and Quality-of-Life Community,” *Natural Hazards Review*, Vol.1, No.3, pp.151-160, 2000.
- [5] CUSEC,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A Community-Based Approach to Hazard Mitigation,” *The CUSEC Journal*, Vol.4, No.1, pp.2-8, 1997.
- [6] FEMA, “Planning for a Sustainable Future: The Link between Hazard Mitigation and Livability,” pp.1-40, 2000.
- [7] D. E. Geis, *Creating Sustainable and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Working Paper*, The Aspen Global Change Institute, 1996.
- [8] 신승용,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사례연구 중간보고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2008.
- [9] 황달기, “지역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지역연구 방법론 모색을 위한 시론”, 일본어 문학, 제 22집, pp.477-504, 2003.

- [10] 최 협, “한국에 있어서의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인류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제2집, pp.171-183, 1997.
-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농업클러스터자원조사-시군별집계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12] 위평량, 김경훈, 김혜선, 손영수, “경제적 관점에서 해양오염피해지역 연구-태안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3호, pp.193-215, 2008.
- [13] 이평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 생태계와 지역공동체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2008 태안환경국제포럼 초청세미나 자료집-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pp.136-150, 2008.
- [14] 박태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특징”, 2008 태안환경국제포럼 초청세미나 자료집-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pp.151-174, 2008.
- [15] 이명석, 오수길, 배제현, 양세진, “재난대응 거버넌스 분석-민간자원봉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제3호, pp.163-188, 2008.
- [16] 이시재, “태안 사고와 자원활동, 그리고 시민운동”, 참여사회, 2월호, pp.16-19, 2008.
- [17] 양기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공공정책 21, 4월호, pp.82-83, 2008.
- [18] 양기근, 강창민, 양덕순, “지역학의 연구동향과 정책적 과제-경남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권, 제2호, pp.237-264, 2007.
- [19] B. World, “Social Capital”, Available online at: [www.worldbank.org/website/external/topics/extsocialdevelopment](http://www.worldbank.org/website/external/topics/extsocialdevelopment) (accessed 18 August), 2006.
- [20] G. M. Mathbor, “Enhancement of community preparedness for natural disasters: The role of social work in building social capital for sustainable disaster relief and management,”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50, No.3, pp.357-369, 2008.

저자 소개

양기근(Gi-Geun Yang)

정회원



- 1993년 2월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학사)
- 2000년 2월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4년 8월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재난관리, 소방정책, 정책 평가 및 분석